

淵泉 洪奭周의 古文作法論 研究

김 성 진*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造語模擬의 反對 |
| II. 淵泉의 撰作態度 | 2. 達意當理의 構文 |
| 1. 爲立教明道 | 3. 辭簡意該의 表現 |
| 2. 愼不苟作 | IV. 淵泉 古文作法의 特徵과 限界 |
| 3. 多讀多作 | V. 맺음말. |
| III. 淵泉의 古文作法 | |

I. 머리말

淵泉 洪奭周는 麗韓十家の 한사람으로 臺山 金邁淳과 더불어 淵臺文章이라 일컬어진 朝鮮後期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淵泉의 古文은 일찌기 金都鍊이 간략하게 언급을 한 후¹⁾ 崔信浩가 그의 文學觀에 대해 살피는 과정에서 약간 다루어진 바 있고²⁾, 최근에 이르러 鄭珉과 金喆凡에 의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鄭珉은 清代學風의 동향과 관련지어 淵泉의 학문정신을 설명한 후 達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1) 金都鍊, 古文의 源流와 性格, 韓國學論集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79.에서 臺山 金邁淳과 함께 짧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 2) 崔信浩, 淵泉 洪奭周의 文學觀, 東洋學 1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3. 이는 주로 詩論과 관련된 문학일반론에 대한 연구로 古文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意論과 文變論을 축으로 한 淵泉의 古文觀과 唐宋과 明清의 諸家文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³⁾ 金喆凡은 擬古文에 대한 연천의 비판을 설명한 후 古法의 體得, 即心과 徵實의 創作姿勢로 요약되는 그의 古文論을 설명하였다.⁴⁾

하지만 古文과 關聯된 논의는 文學의 本質이나 機能같은 一般論보다는 어떠한 문장을 典範으로 삼을 것이며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하는 作法問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古文論은 學問精神이나 作家論보다는 作法에 焦點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인식 아래 본고는 古文論의 本領인 古文作法에 대한 선행논문의 소략함을 보완하고 아울러 그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문장을 지움에 있어 1. 立教明道를 위한 문장이어야 하며 2. 함부로 글을 짓지 않으며 3. 多讀多作의 修鍊이 필요하다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古文을 지을 때의 準則으로 1. 造語와 模擬를 반대하고 2. 達意와 當理가 되어야 하며 3. 그 文辭는 簡約하고 그 뜻은 含蓄的이어야 함을 말하였다. 이러한 淵泉의 文章觀과 古文作法은 다른 文人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序跋이나 書翰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시 그의 晩年著述인 <鶴岡散筆>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本考는 주로 鶴岡散筆을 중심으로 그의 撰作態度와 古文作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텍스트로는 旰晷社에서 影印한 「淵泉全書」를 사용하였다.

II. 淵泉의 撰作態度

1. 爲立教明道

淵泉은 著書를 高下에 따라 다섯가지로 나누면서 道를 밝히고 德을 바르게 하는 것이므로 六經四書와 여러 聖賢의 말이 가장 으뜸이라 하였다. 그 다음으로 든 것이 經世致用과 관련된 歷史와 禮樂兵刑의 책이며, 그 다음이 修辭

3) 鄭珉, 淵泉 洪奭周의 學問精神과 古文論, 韓國學論集 1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9.

4) 金喆凡, 淵泉 洪奭周의 古文論,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하여 이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은 事物을 稽考하고 見聞을 넓히는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小說瑣記를 들면서 이는 다만 내키는 대로 얘기해서 破閑할 뿐이라 하였다. 더구나 淫亂하고 외설스러운 말과 허무맹랑하고 괴이한 이야기는 사람의 心志를 방탕하게 하고 사람의 보고 듣는 바를 미혹하게 하니 名敎의 죄인이며 著書의 數에 끼일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⁵⁾ 여기에서 말하는 名敎란 人倫·道德과 관련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며, 淵泉은 이를 國家의 本務로 보아 문장과 인품을 재는 기준으로 삼았다.⁶⁾

君자가 立論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그 用意의 주된 바를 살펴야 한다. 東坡가 지은 武王論은 멋대로 입을 벌려 내키는 대로 말하여 거의 거리끼는 바가 없는데도 君자가 오히려 이에 현혹된다. 王安石이 지은 伯夷論은 經傳에서 인용하고 의거하러 또한 거의 증거될 만하다. 그런데도 君자가 이를 취하지 않는 것은 名敎에 뜻이 없기 때문이다.⁷⁾

文章을 논함에 있어서는 名敎를 밝히는 것을 주로 하고, 詩를 논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주로 한다.⁸⁾

名敎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本務요, 節義라고 하는 것은 立身의 大綱이다. …… 亭林은 節義로 自律하고 그 論辨이 항상 名敎를 중한 것으로 여겼던 까닭으로 그 논하는 바의 學術政事가 모두 肯要에 맞아 후세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⁹⁾

5) 鶴岡散筆-87, 全書 VII-p. 61 (이는 鶴岡散筆의 第87번째 항목의 글로 淵泉全書冊 VII의 61page라는 의미이다. 以下 마찬가지로)

古之著書者 其高下大率有五等 世之讀書者亦然 太上 明道以正德 六經四書群聖賢之言 是也 其次 經世以致用 聖人之經 兼乎是者也 而歷代史乘禮樂兵刑之典籍 亦與焉 其次 修辭以美觀 其次 稽物以治聞 文章之富 未有尚于六經者也 禹貢之山川 詩之鳥獸草木 禮樂之器械名數 亦學者之所宜究心也 雖然專以是而已 則亦外且末矣 又其下則小記 游談以破閑而已 若淫媠之辭 譎怪之談 蕩人心志 而惑人視聽 則名敎之罪人也 又不足以與于著書之數矣

6) 名敎를 중시하는 이와같은 淵泉의 撰作態度는 顧亭林의 「日知錄」에서 영향받은 바가 큰 듯하다. 「鶴岡散筆」의 곳곳에 「日知錄」에 관련된 기록이 보일 뿐 아니라 燕巖이나 이덕무의 문집에도 「日知錄」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日知錄」은 淵泉을 비롯한 當代 文人들이 상당히 애독했던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金明昊, 「熱河日記」와 清朝學藝, 韓國學報 53輯, 一志社, 1988. 참조

7) 鶴岡散筆-135, 全書 VII-p. 73, 「君子立論 當先觀其用意之所主 東坡作武王論 肆口放言 幾乎無忌憚矣 而君子尚憲之 王安石作伯夷論 援摭經傳 亦庶幾鑿鑿有證矣 而君子不取焉者 其無意于名敎也」

8) 鶴岡散筆-270, 全書 VII-p. 112, 「論文而主於明敎 論詩而主於感人」

9) 鶴岡散筆-299, 全書 VII-p. 121, 「名敎者 國家之本務 節義者 立身之大綱也 …… 亭林 以節義自律其身 而其論常以名敎爲重 故其所論 學術政事 皆深中肯要 可爲後世楷範」

論辨類의 文章에서 立論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名敎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여 비난을 받는 문장의 예로 東坡의 武王論과 王安石의 伯夷論을 들고 있다. 이와같이 文章에 倫理와 道德, 즉 名敎를 담아 治世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立敎라고 한다. 淵泉은 裴晉公이 韓愈의 毛穎傳에 대해 ‘文章으로 立敎하지 않고 戲文하였다’고 심하게 비판한 것에 동의하면서 立敎와 대립적인 문장으로 遊戲之文을 들고 있다. 또한 遊戲之文을 우연히 한 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를 본받아 그치지 않을 것이니 雅道를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餘味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¹⁰⁾

立敎가 실천적인 것이라면 明道는 다분히 원론적이다. 顧亭林은 세상에 유익한 네가지의 문장 가운데 明道之文을 으뜸으로 내세우면서 그러한 문장의 예로 韓愈의 〈原道〉와 歐陽修의 〈本論〉, 張子の 〈西銘〉 등을 들었다.¹¹⁾ 韓愈가 이 〈原道〉에서 ‘因文見道’의 입장을 취하면서 후세에는 古文家라 하면 으레 明道, 또는 載道를 추구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韓愈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韓愈가 儒家의 思想을 계승하여 老·佛을 배척하면서 道를 文의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시킨 것일 따름이다. 古文運動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韓愈가 말하는 古文이 단순히 魏晉六朝의 駢儷文體를 타기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先秦兩漢의 건실한 문체로 되돌리는 동시에, 사상적으로는 老·佛을 배척하고 堯舜과 孔孟의 道로 되돌리고자 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明道는 韓愈 이래로 古文家들의 보편적인 撰作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淵泉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德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말이 있게 되고 道에 깊이가 있는 자로 그 文辭가 공교롭지 아니한 이는 없다.¹²⁾

마음 밖에 文이 있을 수 없고 道를 벗어나서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¹³⁾

깊이있는 道를 글에 담으면 文辭가 절로 공교롭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깊

10) 鶴岡散筆-428, 全書 VII-p. 157. 韓退之作毛穎傳 裴晉公深說之 謂其不以文立敎而以文爲戲 …… 韓公之文 卓絕千古 咳唾涎沫 不失爲至寶 然晉公所言 則實正論也 且遊戲之文 偶一爲之或可耳 人人而效之 累累而不已 不唯傷雅道 亦豈復有餘味哉

11) 馮書耕, 古文通論, 國立編譯館 中華叢書編審委員會, 1966. 上篇, p. 318 참조

12) 鶴岡散筆-16, 全書 VII-p. 39 ‘有德者 必有言 深於道者 其文辭 無不工也’

13) 全書 II-p. 681, 〈答金平仲論文書〉. ‘心外無文 道外無心’

이있는 道를 갖추는 것이 作文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淵泉은 글을 이루고 그 篇章을 모아 책을 펴냄에 있어 가장 으뜸되는 것이 明道正德의 著書라 하여 顧亭林과 마찬가지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표현한 것이 文인데 道를 벗어나서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하였으니, 道와 文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明道를 撰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慎不苟作

연천은 作文을 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글짓기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첫번째의 이유는 문장은 모름지기 立教明道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란하고 괴기한 언사로 사람의 마음을 怠蕩하게 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小說瑣記나 破閑을 위한 戲文은 짓지 않아야 하며, 더우기 大倫과 관련된 것에 이르러서는 단 한마디 말이라도 소홀히 해서 안된다 하였다.¹⁴⁾

다음으로는 문장이란 자칫하면 비난과 헐뜯음의 표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을 위해서 序跋을 지을 경우에도 그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남김없이 다 읽어 一字一句라도 마음에 흡족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붓을 들어서는 안된다 하였다.¹⁵⁾ 특히 墓誌銘같은 경우에는 阿諛하기 쉬운 까닭으로 쉽게 撰作을 맡아서는 안되며 傳狀類 역시 讚美에만 흐르기 쉬우니 신중히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천 자신도 젊었을 때에는 즐겨 글을 지은 듯하나 점차로 글짓는 것을 삼가게 된 듯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짓는 것을 자못 좋아하여 사람들이 글을 구하러 오면 때때로 혹 이에 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文愬가 아주 둔한데다가 성품도 게을러 허락을 해놓고서도 곧 써주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중년 이후로 왕왕 文字로 해서 譏毀를 받는 일이 있어 마침내 일체 사절하고 다시는 짓지 않았다. 하지만 친척이나 오랜 친구의 부탁은 또한 모두 물리칠 수가 없어 자못

14) 鶴岡散筆-282, 全書 VII-p. 117, ‘至於大倫所繫 尤不容一言忽也’

15) 鶴岡散筆-232, 全書 VII-p. 101, ‘凡爲人撰序跋之文者 非盡觀其卷中之載 無一字一句 不繫于心者 決不可下筆也’

꾸짖음과 원망을 받게 되었다.¹⁶⁾

어려서는 글짓기를 좋아하여 남들이 글을 칭하러 오면 우쭐해서 글을 지어주기도 하였으나 점차로 그러한 文名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으로 해서 헐뜯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글짓는 것에 신중해하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듯하다. 아마도 淵泉이 直筆을 추구한 때문으로 원망을 들었을 것이며 또는 선택적으로 글을 써주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연천은 위의 글 다음에 農巖이 만년에 글을 칭탁받으면 그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무단히 이런 惡業을 짓게 하느냐’고 말한 일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이와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¹⁷⁾

다음으로 좋은 文章이란 그 속에 道德이 蘊蓄되어 있는 것이니 그 蘊蓄된 道가 저절로 문장에 발현되도록 기다려야지 짜내듯이 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재주를 믿고 함부로 알맹이없는 글을 써서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⁸⁾ 淵泉은 이와같이 글쓰기를 삼가 道를 蘊蓄하고 만년에 이르러서야 집필하여 不朽의 著作을 남긴 예로 孔子와 程朱를 들었다.

著書와 立言에 대해 古人들은 신중히 여겼다. 孔子가 衛나라에서 魯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나이가 이미 六十이었다. 그런데도 뒤에 易翼을 이루었고 春秋와 詩·書·禮·樂을 撰修하여 자기 그 마땅한 바를 얻었다. 程子是 스스로 말하길 七十 이후에야 책을 지었다고 했고, 朱子의 여러 책들은 모두 노년에 이르러 이전의 것을 刪改한 것이다. 易翼은 이틀만에 오히려 다시 刪定했고 大學章句 중 初년에 撰述한 것은 編者가 알려질까 하여 毀棄하고 남겨두지 않았으며 論孟或問 또한 세상에 전해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대개 그들의 慎重함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후학에 있어서랴.¹⁹⁾

16) 鶴岡散筆-490, 全書 VII-p. 178, 余少頗好爲文 人有來求文者 時亦或應之 然文思深鈍 而性復懶 其諾之而不能即副者 多矣 中歲以後 往往以文字獲口語 遂一切謝不復爲 而親戚世舊之托 亦不可以盡却也 以故 又頗叢詭恣

17) 같은 天, ‘農巖先生 晩年見人求文字 輒頻蹙曰 無端作此惡業 信乎 其爲惡業也 余今病矣’

18) 鶴岡散筆-458, 全書 VII-p. 167. ‘能文者必寡實 而挾名自負者 德之所去 驕人者 禍之所謀 寡實之名 尤謾謗之所集也’

19) 鶴岡散筆-48, 全書 VII-p. 48. 著書立言 古人重之 孔子自衛反魯 年已六十餘矣 而後成易翼 修春秋詩書禮樂 各得其所 程子自言七十而後著書 朱子諸書 皆至老刪改 易翼二日猶更定 大學長句 其初年所述 如困學 恐聞編者 皆毀棄不留 而論孟或問 亦不欲傳于世 蓋其慎重也 如此 而況於後學乎

孔子的 저작들이 주로 六十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程子の 경우에는 七十 이후의 것이며 朱子는 초년부터 著述이 있었지만 대개 노년에 와서 다시 刪改하였는데 著述에 대한 聖賢들의 신중함이 이와 같으니 凡人들이 저술에 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淵泉 자신도 어렸을 때는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못 뜻을 두었는데 노년에 와서 생각해보니 남겨둘 만한 것이 거의 없고 만년에 아주 힘을 들여 이루어진 몇 편을 제외하면 모두 掃去해야 할 것들이라 하였다.²⁰⁾

淵泉은 자신의 만년작이면서 자신의 文論을 집약하고 있는 「鶴岡散筆」의 서두에서 옛사람들은 當世에 뜻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立言하여 後世에 보였다고 하면서 대개 옛날의 이른바 ‘窮愁著書’(困窮에 빠져 悲嘆하면서 책을 써서 자신의 뜻을 서술하는 것) 한 자는 모두 道를 품고 器量을 안았지마는 當世에는 쓰여지지 않았었다고 했다.²¹⁾ 다시 말해 자신도 陸宣公이나 歐陽修처럼 이 글로 인해 비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후세에는 자신의 글이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문장으로 해서 譏毀와 怨望의 표적이 되었다는 진술을 고려해 볼 때 「鶴岡散筆」로 인한 논란에 대한 자기변호로 볼 수 있고, 鶴岡散筆이 별도의 序跋文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저술을 집필하는 자신의 태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후세의 선비들이 그 뜻을 當世에 퍼지 못하는 것은 구차하고 전하거나 비열하고 우월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²²⁾ 문장은 시대를 넘어 전달되는 것이므로 한 때의 毀譽褒貶에 구애되지 말고 만세의 귀감이 될만한 글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야지 함부로 글을 써서는 안된다 하였다.

3. 多讀多作

多讀·多作·多商量은 歐陽修가 作文修鍊의 方法으로 제시한 이래 문장가

20) 같은 곳, ‘余少不自量 頗有意論著 今而思之 殆無一言可存者 唯尚書補傳訂老二書 成於晚年 而用力頗深 續史略翼箋修 先人之業者也 家言則累世模範之所徵也 不可以不肖之故 而闕焉不傳 其餘則一切掃去之 可也’

21) 鶴岡散筆-1, 全書 VII-p. 35. ‘古之人 不得志于時者 必立言 以見于後 …… 蓋古所謂窮愁著書者 皆懷道抱器 而不見于當世也’

22) 鶴岡散筆-55, 全書 VII-p. 50. ‘嗚呼 後世之士 不得志于時者 非苟賤卑迂’

들에 의해 作文의 절대적 전제로 여겨져 왔다. 淵泉 또한 三年의 習作期동안 혼자 古人의 책을 취하여 字句를 본뜨고 헤집는 이와같은 文章修鍊을 그쳤다.²³⁾ 그 후로 淵泉은 ‘任意作文’ → ‘得養氣之說’ → ‘得知言之說’ → ‘得克己力行之說’ → ‘得戒懼涵養之說’ → ‘得萬物一原之說’ 등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文이 道되지 않음이 없고 道가 文되지 않음이 없는 道文一致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글을 반드시 지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짓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글을 반드시 공교롭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공교롭지 않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문장에 있어서의 醇正한 氣와 法言, 文章에 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²⁴⁾ 그리하여 마침내 ‘한번 붓을 잡으면 곧 累百千言이 되어 뜻이 이르는 바를 손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能文하게 되었다.²⁵⁾

이제 識見과 생각이 조금 나아졌다고 스스로 생각되는데도, 제목을 정하고 종이를 펴고나서 눈을 지그시 감고 턱을 괴어 생각해도 한두 句를 쓰거나 문득 멈추어져 뻑뻑한 채로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곧 독서를 오래토록 廢한 데서 오는 명백한 폐해가 아니겠는가? …… 능히 한번 붓을 들어 千言을 쓰면서 滔滔하여 다함이 없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읽는 소리에서 힘을 얻음에 있는 것이니 깊이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없다.²⁶⁾

자신의 識見과 생각에는 진전이 있는데 글이 지어지지 않는 것을 독서의 부족에서 온 것으로 진단하고 能文하려거든 多讀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리하여 古書를 많이 읽고 義理를 講求하여 그 바탕을 심원하게 한다면 歐陽修나 曾鞏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²⁷⁾

23) 〈答金平仲論文書〉, 全書 II - pp. 675~681. ‘其始學也盖茫焉 不知其方向 獨取古人之書 句摸而字索之 三歲而不見益’ 그런데 「鶴岡散筆」에 多讀多作을 강조한 歐陽修의 말이 인용된 것으로 보면 이러한 淵泉의 文章修鍊은 역시 歐陽修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鶴岡散筆-30, 全書 VII-42, ‘或問爲文于歐陽公 公曰 無他術 唯勤讀書而多爲之耳’

24) 앞과 같은 글, 해당부분 요약

25) 〈答舍弟憲仲書〉, 全書 II - pp. 737-741. ‘吾始爲文時 一涉筆 即累百千言 意之所到手不可應’

26) 앞의 글, 같은 곳. ‘今識見意趨 自以爲少進矣 而命題明目支頤 或僅書一二句旋止 苦憂憂不能相續 此非讀書久廢之明害乎... 其所以能一筆千言 滔滔不竭 政在此伊吾聲中得力 不可不深自勵也’

27) 위의 같은 곳, ‘更宜多讀古書 講求義理 以深其根底 則歐曾已上 亦莫之能禦矣’

이제까지 주로 淵泉의 文章修鍊過程에 있어서의 多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삼년동안 주로 古文家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단계를 지나 任意作文했던 것은 多作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년에 이르러서는 글쓰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면서 多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와는 달리 글의 청탁을 거의 사양하면서도 「洪氏讀書錄」을 저술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多讀은 淵泉의 古文撰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III. 淵泉의 古文作法

1. 造語模擬의 反對

造語란 이전에 없던 말을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고 模擬는 이미 쓰여진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쓰는 것을 말한다.

歐陽修가 曾鞏에게 일러 말하기를, ‘문장을 지움에 있어 造語하거나 前人을 模擬하지 말아야 한다’라 하였는데 이는 대개 王安石을 위해서 한 말이다. 文章이 曾·王과 같은 자로서도 이를 경계로 삼을 수 있었는데 새로 배우는 後生과 같은 자로서는 또한 어찌 前人을 步趨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하지만 步趨와 模擬는 또한 스스로 같지 않으니 오히려, 明 中葉 이후로 삼백년 文章의 폐단을 이 두 말로써 다할 수 있으니 歐陽修와 같은 이는 참으로 백세의 文宗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²⁸⁾

歐陽修의 말을 인용하기는 하였으나 명 중엽 이후 문장의 폐단을 이 造語와 模擬라는 두 말로 다 할 수 있다 하였고 또한 歐陽修를 백세의 文宗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으니 淵泉 또한 이와같은 관점에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명 중엽 이후의 삼백년이란 李攀龍과 王世貞 등의 擬古文이 天下를 風靡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模倣과 剽竊을 일삼은 이들의 流弊를 말한 것이다. 淵

28) 鶴岡散筆-121, 全書 VII-p.69. 歐陽公謂曾子固曰 爲文 勿造語及模擬前人 此蓋爲王介甫發也 文章如曾王者 乃可以此爲戒 若新學後生 亦安得不步趨前人也 然 步趨與模擬 又自不同 嗚呼 有明中葉以後 三百年文章之弊 兩言而盡之 如歐陽子者 洵不愧爲百世之文宗矣

泉이 李審夫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대저 王·李라는 자들이 復古의 說을 제창하면서 온갖 괴이하고 무엇인지 모를 말을 만들어 종이를 펼치면 마치 오랑캐의 땅에 들어온 것과 같아 망연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²⁹⁾라 한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造語란 단순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險怪하고 神奇한 字句를 만들어 外華에만 치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險怪하다거나 ‘무엇인지 모를 말’이라 한 것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긴 하였으나 字句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천은 古文撰作에 있어 立言을 해야지 造語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에 ‘古人の 문장에 造語가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자신이 무조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造語와 立言은 같지 않다. 통달된 뜻으로 말을 하고 그 언사가 절로 이치에 합당하며 前人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이나 후세 사람이 만들어 典訓으로 여기는 이와같은 것을 이른바 立言이라고 한다. 字句의 사이에서 神奇한 것만을 구하고 이전 책의 밖에서 새로움을 표방하지만 이치를 주로 하지 않고 오직 言辭를 다듬기만 하는 것 이것을 이른바 造語라고 한다. …… 韓愈는 비록 造語를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붓을 들어 문장을 이루면 자연히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이지 또한 일찌기 苦心하고 온 힘을 다하여 교묘하게 다듬고 險怪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는 않았다.³⁰⁾

古文撰作의 절대적 전제가 立教明道를 위한 글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達意로 言辭를 짓고 그 言辭가 절로 이치에 합당한 立言과는 달리 단순히 字句 그 자체의 신기함과 교묘함에 치중하는 造語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字句가 서로 조응되어 어색하거나 매끄럽지 못함이 없다면 造語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문장은 達意를 위주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뜻을 말하고자 하

29) <答李審夫書>, 全書 II - pp. 728 - 735, ‘自夫所謂王李氏者 以復古之說倡之 而牛鬼蟲豸 百怪交作 猝然展紙 如入僕休侏離之鄉 茫然而不可識爲何語

30) 鶴岡散筆 - 121, 全書 VII - p. 121. 造語與立言不同 達意以言 言自中理 前人之所未及 發而後之人 奉爲典訓 若此者 所謂立言也 求奇於字句之間 標新於前載之外 非理是主 而唯辭之是治 此所謂造語也 … 韓愈氏 雖喜造語 然 下筆成章 自然可誦 亦未嘗苦心極力彫巧而鬪險也

는데 古人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면 造語를 해도 가할 것이라는 것이다.³¹⁾ 하지만 韓愈의 文章이 造語를 위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 造語에 뜻을 두기는 하였지만 險怪하게 만들려고 힘쓰지 않았으며,³²⁾ 造語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後世의 文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造語때문이 아니라 그의 문장이 理가 勝하고 言辭가 통달되며 氣로써 昌大히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³³⁾

淵泉은 造語를 반대함과 동시에 주로 擬古文派에 의해 야기된 模擬와 剽竊의 악습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嘉隆七才子 이후의 秦漢을 모방하는 습속과 기풍은 자신이 말하는 文章이라고 할 수 없으며³⁴⁾ 古文의 법이 韓愈에서 망했다고 하면서 秦漢을 모방하는 것은 古文으로 여긴 何景明은 오히려 局量을 모르는 자라 하였다.³⁵⁾ 이어 正祖에 의해 古文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는 江漢 黃景源의 文章³⁶⁾과 擬古文派인 王·李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黃公이 고인과 비슷한 것은 참으로 걸모습이다. 하지만 李攀龍과 王世貞이 이른바 秦漢을 배운 것은 또한 걸모습이다. 李·王의 모습은 效颯하는 것을 얻은 것이고 黃公의 모습은 오히려 읊하고 사양하며 공손히 절하면서도 깨끗이 씻어 矜壯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으로 그것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³⁷⁾

古文의 걸모양만 모방한 것으로 보아서는 黃景源이나 王·李가 같다고 하면서도 비난의 초점은 擬古文派의 거두인 李攀龍과 王世貞에게 두어져 있다. 이들이 秦漢을 배운 것은 越의 醜女가 西施의 정그리는 모양을 흉내낸 정도에

31) 鶴岡散筆-127, 全書 VII-p. 71, 文以達意爲主… 苟吾意之所欲言 而古人有未及言者 則造語亦可也

32) 鶴岡散筆-126, 全書 VII-p. 71, 退之則有意於造語矣 然亦未嘗務爲險怪也

33) 鶴岡散筆-122, 全書 VII-p. 70, 理勝辭達 而昌之以氣 此韓愈之所 以爲文宗也

34) 鶴岡散筆-229, 全書 VII-pp. 100-101, ‘嘉隆以後 做像秦漢之習氣 非吾之所謂文也’

35) 鶴岡散筆-186, 全書 VII-p. 88, ‘何景明言 古詩之法 亡于謝 古文之法 亡于韓 何氏以模擬秦漢 爲古文 而詆及昌黎 可謂不知量矣

36) 이에 대해서는 鄭玉子の 朝鮮後期文化運動史(일조각, 1988) pp. 86-87.을 참조할 것.

37) <答李審夫書>, 全書 II-pp. 728-735, 黃公之似古人者 固貌也 然 李獻吉王元美所謂學秦漢者 亦貌也 李王之貌 得其嘖呻愾頰者 黃公之貌 猶得其揖讓磬折 修潔而矜莊者 以此較彼 不猶愈乎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模倣과 剽竊을 일삼는 이들의 流害가 우리나라에도 파급되고 있으니 淵泉 자신은 이들과 비슷한 문체를 접하게 되면 눈을 가려 보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憤氣가 얼굴에 솟구치고 마음에 병이 될 지경이라 하였다.³⁸⁾ 그리하여 李審夫가 이들이 司馬遷과 班固의 句語를 쓴 것만 가지고 책망한 것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말한 것이다.³⁹⁾ 이어서 ‘요즈음에 이른바 秦漢을 模倣한다고 하는 자로 일찌기 한 사람도 彷彿한 것을 볼 수 없었다’고⁴⁰⁾ 한 것을 보면 擬古文에 대한 淵泉의 이러한 비판은 주로 秦漢文의 字句만을 따서 險怪한 문장을 만드는 당시 문단의 악습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淵泉이 말하는 模倣란 前人을 뒤따르는 步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陳言으로 화려한 文章을 지으려 하거나 前人의 文章을 표절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배우는 後生으로서야 前人을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模倣와 步趨는 저절로 다른 것⁴¹⁾ 이라는 논리다.

或者가 말하길, ‘다만 陳言을 없애도록 애쓰라고 한 것은 退之의 말이 아닌가? 陳言을 없애야 한다면 어찌 造語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 하므로 ‘그대는 陳言을 다만 古人이 이미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古人이 이미 말한 것은 退之도 일찌기 쓰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陳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라 하여 ‘文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古人의 말로 진실로 나의 뜻을 통하게 할 수 있으면 또 무엇때문에 이를 쓰지 않을 것인가? 東京시대 이래로 글을 짓는 자들은 화려하기에 힘쓰고 박식함을 뽐내어 무릇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사실을 가리키는 데 힘쓰지 않고 문득 古人의 문장을 借用하되 대략 比類할 만한 것은 斷章絕句해서 사용하는데 班固로부터 이미 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 했다.⁴²⁾

- 38) 앞과 같은 곳, ‘王李之流害 至今不息于中國 而浸淫欲波及我東… 每讀人文辭 其體有近於是者 輒掩目而不欲視 甚者氣勃勃上衝 欲發心疾’
- 39) 앞과 같은 곳, ‘今 執事 但以全用馬班氏句語 責王李 亦可謂太恕矣’
- 40) 앞과 같은 곳, ‘輒近所謂倣秦漢者 未嘗見一人能彷彿’
- 41) 鶴岡散筆-120, 全書 VII-p. 69, ‘若新學後生 亦安得不步趨前人也 然 步趨與模倣又自不同’
- 42) 鶴岡散筆-122, 全書 VII-p. 70, 或曰 惟陳言之務去 非退之之語乎 陳言之去 安得不造語也 曰 子 以陳言 爲但指古人之已言者而已乎 古人之已言者 退之未嘗不用也… 然則陳言者 果何所指也 曰 文者 達意而已矣 古人之言 苟可以達吾意 則又何不可用之有 東京以來 爲文者 驚華而銜博 凡有所言 不務指實 輒借古人之文 粗可比類者 斷章絕句而用之 自班固 已不免此

이미 쓰인 말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화해서 자신의 문장에 완전히 녹아들게 할 수 있다면 이는 陳言이 아니라 步趨이며 이는 後世人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장 본래의 기능인 達意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려하기에 힘쓰고 박식함을 뽐내려고 古人의 字句를 따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을 나타내는 데는 힘쓰지 않고 남의 문장을 차용하면서도 글자만 바꾸어 자기가 새로 만든 것처럼 꾸며내거나 부분만을 따와 意境을 盜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擬古文派는 古人의 心思와 性情은 본받지 아니하고 다만 筆墨과 字句의 꺾레기로써 古人을 답습하고 본뜨려 하니⁴³⁾ 古文에 능할 수 없고 新體文을 추구하는 자들은 技巧과 기이함을 다투고 媚態에 기울며 尖纖하고 온갖 괴이한 것으로 어근거리게 해서 눈을 현혹시키고 귀를 빼앗아 가니 문장의 비루함이 극에 달하고 그 害가 心術에까지 옮겨지게 되었다⁴⁴⁾는 것이다.

淵泉은 당대 文壇에 擬古文과 新體文의 두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전자는 주로 모방과 표절을, 그리고 후자는 주로 造語를 일삼고 있다고 보아 이의 극복을 古文作法의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達意當理의 構文

達意當理의 문장이란 載道之文으로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을 말한다. 옛날에 글을 짓는 사람들은 이와같이 하였는데 左氏 이후로 華藻가 勝해지고 鄒陽에 이르면서 駢儷對偶의 어그러짐이 있게 되었고 楊雄에 이르러서는 字句가奇怪해져서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되어 마침내 載道之文은 그 彷彿한 것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남들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쓰고자 했고 지금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글을 쓰고자 하니 達意當理한 古文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이다.⁴⁵⁾

43) 〈玄巖遺稿序〉, 全書 III - pp. 160 - 163, '徒欲以筆墨字句之表 襲古人而像之'

44) 앞과 같은 곳, '鬪巧競異 仄媚尖纖 百怪眩賜 目眩耳奪 文之卑 極矣 而害且移于心術'

45) 鶴岡散筆 - 280, 全書 VII - p. 116, '意暢而理明 辭順而人易曉 古之爲文者 如是而已 孔子曰辭達而已矣 華藻之勝 始於左氏 一變而至鄒陽 則偶儷乖矣 再變而至王褒 則文靡而道隱矣 三變而至楊雄 則字句奇而人不能曉矣... 至于近世 而嘖哇侏儻百怪并出 載道之文 不可求其彷彿矣 古之爲文者 欲人之知之 今之爲文者 欲人之不能曉 是果何爲也哉'

이 達意란 用語는 「論語」 衛靈公篇에 나오는 ‘辭達而已’라는 句節에서 유래한다. 朱子は 이에 대해 ‘辭取達意而止 不以富麗爲工’이라 注하였고 司馬光是 ‘明其足以通意 斯止矣 無事於華藻宏辯也’라 하였다. 蘇軾 또한 이를 ‘夫言止于達意’라 이해하였으며 대부분의 古文家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해석을 하고 있다.⁴⁶⁾ 茶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래는 使臣을 專對하는 言辭에 대해 孔子가 말한 것을 宋의 학자들과 문인들이 문장의 工拙과 관련지어 언급하게 되면서 達意가 古文作法的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文은 達意일 뿐이다. 古人の 말이 진실로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또 어찌 이를 쓸 수 없으리오. 東京 이래로 글을 쓰는 자들이 화려하기에 힘쓰고 博識함을 자랑하여 말할 바가 있으면 힘써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고 문득 古人の 말을 차용하되 크게 比類해야 할 것을 斷章絶句하여 사용한다.⁴⁷⁾

陳言을 쓰는 것은 古文家들이 피해야 하지만 達意를 위해서는 古人の 말을 쓰는 것도 무방하다 하였다. 여기서 보면 達意란 곧 말할 바가 있을 때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와 대립되는 것이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고 박식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뜻의 전달에 힘쓰지 않고 겉모양을 꾸미기에만 힘써 古人の 말을 쓰되 그 뜻을 취해 쓰지 않고 다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斷章絶句하므로 滯泉은 達意를 내세워 이러한 그릇된 풍조를 교정하려 한 것이다.

어렵고 어둡게 해서 심오하게 하는 것은 達이 아니며, 얽어짜서 工巧롭게 하는 것은 達이 아니며, 죽 늘어놓고 덧붙여서 豊富하게 하는 것은 達이 아니며, 분을 바르는 것처럼 꾸미고 번지르하게 해서 華麗하게 하는 것은 達이 아니다.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서 빛나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볼 수 있고, 드넓은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어 발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으며 動物·植物, 나는 것·물속에 있는 것이 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

46) 馮書耕: 앞의 책 <修辭順有理意>條, pp. 1432-1444. 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茶山과 같은 학자는 이 구절이 본래 使臣이 專對하던 言辭에 대한 언급인데 학자들이 이로써 文章家 辭句의 工拙을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論語古今注」 卷入 26面, 「與猶堂全書」 冊二, p. 324. ‘此所云辭達 亦大夫專對之辭 非他辭也 近儒論此經 皆以文章家詞句工拙而言之’

47) 鶴岡散筆-122, 全書 VII-p. 70, ‘文者 達意而已矣 古人之言 苟可以達吾意 則又何不可用之有 東京以來 爲文者 驚華而街博 凡有所言 不務指實 輒借古人之文 粗可比類者 斷章絶句而用之’

서 作爲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와같은 것을 일컬어 達이라 한다.⁴⁸⁾

達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達意의 대립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達이 아닌 것을 열거하면서 當代의 그릇된 문풍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深奧·工巧·豐富·華麗’는 當代의 문장가들이 추구하던 바라고 한다면, ‘艱晦·組織·鋪衍·粉澤’은 이와같이 문장의 외형적 美感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병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駢儷文이나 擬古文을 일컫는 것으로, 후세의 글들이 이와같이 駢儷로 화려하게 꾸미거나 기이한 것을 찾아 險怪하게 해서 辭達의 뜻을 기약하지 못하니 聖人이 이를 보면 모두 異端으로 여길 것이라 하였다.⁴⁹⁾ 따라서 이와같은 문장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자연스런 문장, 즉 達意의 문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은 達意를 위주로 해야 하며 그 뜻은 이치에 합당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고금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古人의 말을 써서 나의 뜻을 通達하게 할 수 있다면 古語를 써도 좋은 것이다. 진실로 내 뜻을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古人이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造語를 하더라도 도한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古人의 말을 쓰고서는 그 글자를 고쳐 神奇됨기를 구한다면 그 鄙陋함이 더할 나위없게 된다.⁵⁰⁾

여기에서 達意란 문장 전체의 틀과 관련된 것이고 造語와 模擬는 주로 修辭上の 문제인 것이니 뜻의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造語·模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한 것이다. 하지만, 達意를 위해 造語를 하더라도 古人이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며 표현상의 新奇함을 위해 古人의 文句를 표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뜻이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문장이 지향하는 바가 도리에서 이

48) 鶴岡散筆-450, 全書 VII-p. 165, ‘艱晦以爲奧 非達也 組織以爲工 非達也 鋪衍以爲富 非達也 紛澤以爲麗 非達也 如日月之麗天 而有目者 皆可睹也 如康壯之四鬮 而有足者 皆可行也 若動植飛潛之各呈其形 而無所容於作爲也 若此之謂達’

49) 鶴岡散筆-51, 全書 VII-p. 49, ‘後世之文 駢儷藻飾與鉤棘險怪 不期乎辭達者 由聖人視之 必皆以爲異端矣’

50) 鶴岡散筆-127, 全書 VII-p. 71 文以達意爲主 意以當理爲貴 理者 無古今之異者也 用古人之語 而可以達吾意 則用古語 可也 苟吾意之所欲言 而古人有未及言者 則造語 亦可也 用古人之語 而改其字以求新 陋莫甚焉

긋나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문장의 앞뒤가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 문장의 뒤에 ‘이치라 하는 것은 고금의 차이가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면 전자와 같은 의미인 듯하고, ‘말로써 뜻을 통하게 하고 말은 절로 이치에 맞아야 한다’⁵¹⁾는 말과 연관시켜 보면 문장에 있어서의 일관된 논리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문장의 뜻을 잘 통하게 하려면 그 문장이 일관된 논리를 지녀야 하는 만큼 當理는 達意를 위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3. 辭簡意該의 表現

대개 文章은 質朴한 데서 華麗한 쪽으로, 簡潔한 데서 煩雜한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古文家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대로 보아서는 西漢의 文章이 東漢보다 간결하고 東漢은 魏代의 문장보다 간결하다 하겠는데, 唐宋으로 말하면 唐은 文句가 짧고 비교적 간결하지만 宋은 文句가 길고 비교적 煩雜하다는 것이다.⁵²⁾ 淵泉도 이와같은 古文家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先秦西漢의 글은 簡約하여 達意의 문장이나 東漢 이후의 문장은 煩雜하여 그렇지 못하다는 ‘文隨世變 代不如前’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聖人の 道는 簡潔하고 平易하며 明白할 뿐이다. …… 말이 간결하면 그 文辭는 엄정해진다.⁵³⁾

聖人の 문장은 뜻이 심원하고 그 文辭가 간결하다.⁵⁴⁾

문장의 폐단은 대개 衰漢에서 비롯되어 魏晉에서 이루어지고 六朝에서 극에 달하여 심지어 일은 실재를 기록하지 않고 말은 衷心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이에 二帝三王의 道가 땅을 쓸듯이 없어졌다.⁵⁵⁾

西京의 문장은 醇厚하고도 近實하나 東漢 이후로는 氣力이 쇠약해졌다. 그런데도 화려한 문장으로 이를 꾸미니 이에 駢儷對偶의 文體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⁵⁶⁾

51) 鶴岡散筆- 121, 全書 VII - p. 69, ‘達意以言 言自中理’

52) 馮書耕: 앞의 책 pp. 1490-1491 참조.

53) <春秋問答>, 全書 III - p. 664, 669, ‘聖人之道 簡易明白而已矣… 言簡則辭嚴’

54) <題四家文抄>, 全書 III - p. 457, ‘聖人之文 旨深而辭簡’

55) <答金平仲論文書>, 全書 II - p. 677, ‘文之弊 蓋始于衰漢 成于魏晉 極于六朝 甚至乎事不紀實 言不由衷 於是乎 二帝三王之道 掃地盡矣’

56) <答李審夫書>, 全書 II - p. 732, ‘西京之文 醇厚而近實 自漢之東 氣衰弱矣 而飾之以駢儷 於是乎 駢儷對偶之體 始興’

先秦西漢의 문장이 ‘言簡辭嚴’ ‘旨深辭簡’ ‘醇厚近實’ 한데 비해 東漢 이후 문장은 ‘事不紀實’ ‘言不由衷’ ‘氣力衰弱’ ‘以靡文飾’ 하다 하여 양자의 주요한 변별요소를 簡約함에서 구하고 있다. 문맥상으로 볼 때 淵泉이 말하는 簡約함이란 文旨의 深遠함과 언어구사의 嚴正함, 그리고 寫實的 表現을 전제로 한다. 文章의 含蓄美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東漢 이후의 문장에서는 뜻은 외면한 채 표현상의 기법에만 치중하고 화려함만을 구하고자 하니 文章에 二帝三王의 道가 없어지고 駢儷對偶의 體가 천하를 휩쓸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先秦西漢의 문장이란 주로 經典類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論語」와 「孟子」가 강조되고 있다.

樂師 冕이 만나뵈러 왔다. 계단에 이르자 공자께서 ‘계단입니다’라 하시고 자리에 이르자 ‘자리입니다’라 하셨다. 모두 앉으니 공자께서 告하시기를 ‘아무개는 여기에 있고 아무개는 여기에 있습니다’라 하였다.⁵⁷⁾

淵泉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古人의 문장은 이와같이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이 해박하다⁵⁸⁾고 하였다. 앉은 사람은 師冕이고 앉은 것은 師冕 한사람인데 ‘모두 앉았다’고 표현한 것은 앉아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아닌 때문이며,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師冕이 들어오자 비로소 ‘다 앉았다’라 한 것은 이미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은 것은 師冕이 들어오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이요 그들이 모두 일어나게 된 것은 夫子께서 이미 일어나시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모두 앉았다’는 두 글자 뿐인데도 聖人의 動容의 상새함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아무개 아무개를 두루 거론할 때에도 그 말을 중첩해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⁵⁹⁾

57) 師冕見 及階 子曰 階也 及席 子曰 席也 皆坐 子告之曰 某在斯 某在斯. 이는 「論語」 衛靈公 第15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다.

58) 鶴岡散筆-451, 全書 VII-p.165, ‘古人之文 其辭約而意該 如此’

59) 앞과 같은 곳, ‘坐者 師冕 坐也 師冕一人 而謂之皆坐 何也 在坐者 非一人也 在坐者 坐已久矣 師冕之入 而始言皆坐 何也 既起而復坐也 曷爲起而復坐也 師冕之入 而在坐者 皆起也 何以見其皆起也 夫子既起 在坐者 皆不得不起也… 夫皆者二者耳 而可以想聖人動容之詳 又可以知歷舉某某之不得不重其辭也’

이와같이 ‘辭簡意該’한 古文을 짓는 방법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省文之法’이다. 淵泉은 이러한 古人的 省文之法이 잘 구사된 문장의 예로 「孟子」梁惠王章句下 十六을 들고 있다.

「孟子」에 이르러서는 開闢·奇正·萬變을 다 갖추고 있어 韓愈·歐陽修·三蘇와 같은 後世 作家들의 문장도 다 이에서 나온 것이니 독자는 이를 알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 一段을 들어 말해보기로 한다.

‘魯平公 將出’에서는 무엇때문에 외출하려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臧倉의 물음으로 해서 ‘將見孟子’라 말하였기에 비로소 그가 외출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무슨 연유로 만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樂正子가 孟子에게 ‘克告於君 君爲來見也’라 고향에 미쳐서야 비로소 그것이 樂正子의 말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平公이 樂正子에게 답한 것은 ‘或告寡人’일 뿐이지 그가 臧倉임을 말하지 않았다. 樂正子가 孟子에게 ‘嬖人有臧倉者 沮君’라고 고향에 미친즉 樂正子가 대개 이미 臧倉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것이 대개 古人的 ‘省文之法’이다.⁶⁰⁾

淵泉이 말하는 省文之法은 다분히 修辭學的이다. 대개 문장은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魯平公 將出’이란 문장에서는 외출하는 목적에 관한 구절이 요구되고 ‘將見孟子’이란 문장에서는 무엇때문에 孟子를 만나고자 하는가에 대한 만남의 의도에 관한 구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있어야 할 설명이 생략되면 독자는 어쩔 수 없이 다음의 문장을 읽어야만 한다. 하나의 의문이 풀리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淵泉이 위의 예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상의 기법이다. 「孟子」가 이런 의도하에서 쓰여졌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淵泉은 「孟子」梁惠王章句下 十六에서 이러한 표현상의 기법을 발견하고 이를 ‘省文之法’이란 말로 적시한 것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 淵泉은 이 ‘省文之法’을 聖賢之書 文章의 주요한 특징이 하나이며 韓柳歐蘇가 「孟子」를 통해 터득한 古文作法도 바로 이 ‘省文之法’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先秦西

60) 鶴岡散筆-101, 全書 VII-p. 64, 聖賢之書 不可以文辭求也, 然 文章之盛 實未有如聖賢之書者 至於孟子 則開闢奇正萬變悉具 後世作者 如韓歐三蘇之文 其原皆出于此 讀者 亦不可不知也 今姑舉其一段言之曰 魯平公 將出 則不語其何爲而出也 及因臧倉之間而曰 將見孟子 則始知其所爲出矣 然 猶未知其何由而欲見也 及樂正子之告孟子也曰 克告於君 君爲來見也 則始知其由樂正子之言矣 平公之答樂正子也曰 或告寡人而已 不言其爲臧倉也 及樂正子之告孟子曰 嬖人有臧倉者沮君 則樂正子蓋已聞臧倉之言矣 此蓋古人省文之法

漢의 문장과 唐宋八家文의 文章技法上의 공통점을 적절한 생략법의 구사에서 찾은 것이다.

淵泉은 韓愈가 이러한 省文之法등을 통해 簡潔謹嚴한 先秦西漢의 문장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古文運動을 주창하면서 六朝이래의 衰靡한 文風이 일소되어 辭簡意該한 古文의 遺軌를 되찾게 되었다고 보아 그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같은 이유에서 曾鞏의 문장을 애호하였다.

漢氏 이래로 道가 있으면서 文에 능한 자는 韓愈만한 이가 없다.⁶¹⁾

그 뜻은 깊고 文辭는 簡潔하며 文句는 健實하고 정신은 굳세다.⁶²⁾

曾子固의 작품에 이르러서는 …… 今年에 와서야 그 글이 簡潔하고 謹嚴하여 참으로 西漢의 遺軌를 얻어 비록 蘇氏의 형제라 할지라도 오히려 마땅히 하염없이 옷깃을 여며야 하며, 근세의 글하는 사람으로 文句를 자르고 덜고 서는 스스로 矯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미치지 못할 바임을 깨닫게 되었다.⁶³⁾

韓愈와 曾鞏의 문장에 대한 淵泉의 尊崇은 표현의 간결함과 뜻의 健實, 謹嚴함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근세의 文士들은 省文之法을 잘못 본떠 字句를 矯健하게 하지만 잘라낸 흔적을 가리지 못한다고 보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先秦西漢 古文의 正脈을 이은 曾鞏의 문장에 미칠 수 없는 이유라 하였다. 본디 古文은 聖賢의 글을 지향한다. 하지만 성인의 글됨은 뜻이 깊고 文辭가 簡約하여 이를 즐김은 마치 造化는 이를 좇을 수 없는데도 구하는 것과 같고 이를 배움은 하늘에는 사다리를 놓을 수 없는데도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韓愈와 曾鞏을 비롯한 唐宋八家의 문장은 簡約한 表現과 健實·謹嚴한 뜻으로 해서 그 구하기 쉬움은 자취가 되고 그 오르기 쉬움은 사다리가 된다.⁶⁴⁾ 다시 말해 四書五經의 문장은 너무도 심원하여 곧장 이르기 어려우므로 唐宋八家文을 거쳐 이에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그 표현상의 요체가 辭簡意該라는 것이다.

61) <集八家文答仲>, 全書 III - p. 712, 漢氏以來 有道而能文者 莫若韓愈

62) <擬祭昌黎先生文>, 全書 III - p. 526, ‘其意深而辭簡 句健而神逸’

63) <答舍弟憲仲書>, 全書 II - p. 739, ‘到曾子固所作… 至今年而後 始悟其簡潔謹嚴 眞得西漢遺軌 雖蘇氏兄弟 猶當斂衽萬萬 非近世操觚之家 截句滅字 自以爲矯健者 所可企也’

64) <題四家文抄>, 全書 III - p. 456, ‘爲聖人之文 旨深而辭簡 其玩之也 如不可迹而求也 其學之也 如天之不可階而陟也 韓柳歐蘇之文… 其求之易爲迹 其陟之易爲階也’

표현의 簡約함과 뜻의 嚴正함을 古文作法의 주요한 특질로 보았기에 이른바 語錄體가 繁冗하고 마치 개미독을 쌓듯이 聯을 죽 늘이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싫증이 나게 한다 하여 古文에 들 수 없다 하였다.⁶⁵⁾ 또한 文章이 繁冗하면서도 公교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는⁶⁶⁾ 方苞의 말을 인용하면서 각 문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문장의 길이도 어느정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韓·柳·歐·蘇의 문장 가운데 세상에서 誦習되고 있는 것은 대개 六, 七 百言을 넘지 않는다. …… 序·記·表·誌에 이르러서는 西, 五百言을 넘는 것이 또한 거의 없다. 韓·柳의 序·記는 더욱 簡約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 〈送鄭尚書序〉는 겨우 五百餘字일 뿐이나 이를 大序라고 하였다. 나는 글을 지움에 있어 항상 지나치게 繁冗한 것을 괴롭게 여겨왔는데 만년에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통렬하게 베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혹 다른 사람을 위해 서술하게 되면 왕왕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있었다.⁶⁷⁾

唐宋八家文의 簡約한 문장을 예로 해서 古文撰作에 있어 字數의 제한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6, 7백언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히 序跋類나 雜記類의 문장은 짧은 것이 좋으므로 4, 5백언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법상의 원칙에 따라 繁冗한 문장을 꺼리고 簡約한 문장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로해서 번다한 문장에 젖어있는 세인의 비난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기력이 쇠하면서 문장의 繁冗한 부분을 잘라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淵泉은 당대 문단의 폐단은 繁冗함이며 辭簡意該한 문장의 撰作에는 반드시 氣力이 배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65) 鶴岡散筆-178, 全書 VII-p. 86, ‘文以簡嚴爲貴 後世之所謂語錄者 皆繁冗 沓拖堆架 而牽聯 使閱之者 憊然而倦 若是者 又不可以入古文也’

66) 學岡散筆-495, 全書 VII-p. 180, ‘方苞云 文末有繁而能工者 誠哉 是言也’

67) 앞과 같은 곳, ‘韓柳歐蘇之文 爲世所誦習者 率不踰六七百言… 至序記表誌 過四五百言者 亦絕少 韓柳序記 尤以簡爲佳 送鄭尚書書 才五百餘字 已爲之大序矣 余爲文 常苦太冗 晚年氣衰 尤不能痛加芟削 然 或爲人敘述 往往有嫌其太少者’ 이 인용문의 바로 앞에 簡約함을 강조한 方苞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辭簡意該한 표현을 중시하는 淵泉의 古文作法에 方苞의 古文理論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IV. 淵泉의 古文作法의 特徵과 限界

앞에서 淵泉의 古文作法으로 든 造語模擬의 反對, 達意當理의 構文, 辭簡意該의 表現 등은 古文家들의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진술이다. 이는 歷代 古文家들이 先秦兩漢의 문장을 典範으로 삼아 創新보다는 法古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대 문인들의 경우, 어느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장이나 作法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별, 유파별로 어떤 특정한 방향에 치중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淵泉의 古文作法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達意를 내세워 造語와 模擬의 절충을 꾀하고 있다. 達意를 造語나 模擬를 뛰어넘는 樞要로 보아 자신의 뜻을 잘 통하게 할 수 있으면 造語를 해도 무방하고 이미 쓰여진 말을 步追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는 當代 文壇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었던 新體文과 擬古文에 비판적인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簡約한 표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簡約함을 추구하는 것은 古文家들의 일반적 현상이라 하겠으나 淵泉의 경우 「論語」나 「孟子」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이른바 ‘省文之法’을 古文作法의 대원칙으로 내세워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 ‘省文之法’에 의한 辭簡意該한 표현이 바로 四書五經의 文章과 唐宋八家文을 貫流하는 文章作法이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簡約한 표현을 위해서는 문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 7백언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글자수까지 적시하여 그 주장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古文家들은 대개 下代로 내려올수록 文章이 쇠약해진다고 하고 문장이 衰하는 기점을 兩漢 이후로 본다. 그리하여 擬古文派거나 古文派거나 先秦兩漢의 文章을 지향한다. 다만 古文派들은 唐宋古文을 거쳐 秦漢文章에 이르려고 하는 방법상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런데 淵泉은 兩漢을 말하지 않고 西漢만을 말한다. 이때부터 靡文으로 修飾하는 폐단과 駢儷對偶의 體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文章의 氣力이 衰하였다고 하였다. 淵泉의 경우

秦漢의 개념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⁶⁸⁾

簡約함을 강조하는 淵泉의 古文作法은 方苞의 ‘古文義法’에서 영향받은 바 크다. 淵泉에 미친 方苞의 영향에 대해서는 鶴岡散筆에도 잘 나타나고 있거니와⁶⁹⁾ 方苞의 古文義法이 그 論據로 삼은 「春秋」의 筆法이 ‘文辭를 簡略히 하고 煩重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므로⁷⁰⁾ 淵泉도 자연히 簡約함을 표현의 요체로 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擬古文을 반대하고 程朱學을 옹호하는 方苞의 古文義法이 淵泉등에 의해 수용됨으로 해서 古文運動이 당시 사회체제를 위협했던 反程朱學의 實學이나 西學에 대한 대항논리로 점차 자리잡기에 이른다.

唐代的 古文運動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⁷¹⁾ 朝鮮後期の 古文運動도 이와같이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는 朝鮮後期の 古文家들이 대체로 당시의 집권층이었던 老論洛論계열이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되 된다. 문학이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수단이 될 때 그 문학은 내용이 경직되게 되고 논리도 현상보다는 명분에 치중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며, 淵泉의 古文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創新보다는 法古에 가치를 두게 되며 그 결과 독창성을 상실하고 전편 일률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淵泉의 古文作法은

68) 劉麟生은 駢文作風の 동향을 氣勢와 詞藻의 高低로 표시하여 東漢이후로 氣勢와 詞藻가 다 같이 하강되되 魏晉이후로 詞藻가 氣勢를 누른 후 계속해서 詞藻가 氣勢를 압도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 圖表에서 劉麟生은 三代, 秦西漢, 東漢, 魏晉, 南北朝, 唐, 宋, 元明, 清 등으로 時代를 나누고 있다. 「中國駢文史」, 臺灣商務印書館, 1976, p. 9.

69) 鶴岡散筆-493, 全書 VII-p. 179, 嘉慶初 余入燕京 見翰林編修費蘭堦 論近世文章 費言百餘年來 學韓歐者 亦不爲少矣 然 當以望溪方氏 爲稱首 余時不識望溪爲何人 及聞費言 始求其集見之 其贖而不穢 醇而能肆 亦不愧於近世作家 紀曉嵐嘗議 其未能規矩在手 自運方圓 然 此以語李獻吉王元美模擬字句者 則可若望溪之馳騁自得不落窠臼 未可以是議也 望溪爲人作碑誌 其文末嘗踰果紙 雖平生親知 敘其行止一二事 非所識有徵者 不爲之下筆 其自重於文如此 嘗言錢謙益文 一如其人穢惡 藏於骨髓 有或效之 終不可蕪濯 其志尚亦可見矣 望溪名苞

70) 李康來: 桐城派 方苞의 古文理論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 대학원, 1986, p. 16 참조. 淵泉 또한 〈春秋問答〉에서 ‘聖人之道 簡易白直而已矣’ ‘言簡則辭嚴 感深則指遠’이라 하여 「春秋」가 ‘簡辭除煩’의 筆法에 따라 쓰였음을 말하고 있다. 〈春秋問答〉: 全書 III - pp. 663-675)

71) 丁範鎮: 唐代古文運動과 傳奇文과의 關係, 成大論文集 15, 1970.

비록 達意를 중시하고 簡約한 표현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결국 앞선 古文家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淵泉은 文體에 따라 표현법과 그 지향, 그리고 문장의 길이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긴 하였으나 古文의 撰作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擬古文이나 新體文의 病弊를 지적비판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신할 새로운 문장을 보이지는 못하고 다만 唐宋古文을 그 典範으로 내세웠을 뿐이었다.

V. 맺 음 말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淵泉은 古文을 撰作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무엇보다도 立教明道를 위할 것을 말하였다. 載道之文의 입장에서 문장은 모름지기 人倫道德과 관련된 가르침을 세우고 도를 밝혀야 하며 道를 글에 담으면 文辭가 절로 공교롭게 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글은 함부로 짓지 않아야 하며 蘊蓄된 道가 저절로 문장에 발현되도록 기다려야지 짜내듯이 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 문장은 끊임없는 자기연찬을 통해서만 가능하니만큼 多讀多作의 수련이 요구된다 하였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作文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多讀은 古文撰作의 절대적 전제인 지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古文을 撰作함에 있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造語와 模擬를 반대하였다. 新體文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險怪한 造語와 擬古文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模擬剽竊의 폐해를 아울러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 達意當理의 構文을 말하였다. 이는 문장을 지음에 있어 뜻을 잘 통하게 하고 그 뜻이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古文家들의 일반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淵泉은 이를 造語나 模擬의 禁忌에 구애되지 않는 핵심적 원리로 강조하였다.

淵泉은 桐城派 方苞의 古文義法을 수용하여 古文作法에 있어 무엇보다도

簡約함을 중요한 것임을 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論語」나 「孟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省文之法을 내세워 문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각 편이 6, 7백언이 넘어서는 안된다 하였다.

淵泉의 文章觀은 여느 古文家들과 마찬가지로 ‘文隨世變 代不如前’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유독 先秦西漢을 내세워 東漢이후로 문장이 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駢文의 출현 이후 文章의 氣力이 쇠해지고 對偶의 문장이 세상을 휩쓸어 더이상 載道之文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때문이다.

淵泉이 이와같은 古文作法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歷代 古文家들의 古文作法을 되풀이한 것일 뿐 뚜렷한 독창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古文運動이 주로 당시의 집권층이던 老論洛論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古文運動은 다분히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될 위험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으며 淵泉의 古文作法도 이러한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본래 作法에 대한 연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실제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검증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稿를 달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